

D중공업 근로자의 구강위생용품 사용실태 조사

박 홍 련
진주보건대학 치위생과

A Study on the Status of Practical Application of Oral Hygiene Devices :with labor of the D heavy industries

Hong-Ryurn Park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Jinju Health College, Jinju-City 1142, Korea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practical application status of oral hygiene devices through making a survey of labor of the D industrial company-about carefully curing oral disease in home, the status of practical application of tooth brush, the status of practical application of fluoridated toothpaste, status of practical application of auxiliary oral hygiene devices, a motive use or unuse of auxiliary oral hygiene devices. 1. In home, carefully curing oral disease is dental caries(62.4%). 2. Status of practical application toothbrush showed the highest user ratio of mideum size(79.6%). 3. Showed the highest user ratio of horizontal plane toothbrush(73.5%). 4. Answerd don't take a prudent attituded in choice of fluoridated toothpaste(73.5%). 5. In the status of reconition of oral hygiene devices, showed the highest user ratio of eletric toothbrush(77.0%). 6. In the status of reconition of auxiliary oral hygiene devices, showed the highest user ratio of wooden wedge stimulator(89.4%)and gargle liquid(84.5%). In using of oral hygiene devices, showed the highest user ratio of electric toothbrush(13.3%), toohbrush for periodontal patients(2.7%). In using of auxiliary, wooden wedge stimulator (58.4%)and gargle liquid(41.2%). In effect using of oral hygiene devices showed the highest user ratio of denture brush(50.0%)and eletric toothbrush(43.3%), in effect using of auxiliary oral hygiene devices showed the highest user ratio of water pick(80.0%) and dental floss(75.8%). 6. A motive of the use auxiliary oral hygiene device is choice by oneself through TV, advertisement, public information(57.6%), and the reason-they don't use of auxiliary oral hygiene device-because of they don't know proper to them the kind of auxiliary oral hygiene device.

Key words Oral Health Status, Industrial labors

서 론

근로자들의 구강보건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1970년대 이후에 시작 되었으며 1995년 이후 직장 근로자의 일반 건강진단시에 구강검진이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구강보건제도를 확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면서 그동안 근로자들의 구강병을 방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치아기능 상실을 방지하고 나아가 직업성 구강질환으로 인한 근로장이나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성인집단인 근로자들에게 일반적인 구강검진으로 구강건강을 예방 증진시킬 수 있는 길은 아직 미흡하기만 하다^{1,2)}. 우리나라에서는 법정구강상병 검진제도가 마련 된 후 여러 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진의 결과만을 통보해 줄 뿐 근로자 구강보건교육이나 직장 구강보건사업 및 계속구강건강관리를 통한 예방지향포괄구강진료

에 대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³⁾. 발생빈도가 높고 치아발거의 대표적 원인이 되는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치면세균막관리가 중요하다. 치면세균막관리는 우선 칫솔을 포함한 기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구강을 청결히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며, 여기에는 칫솔질 습관, 방법, 횟수, 시기, 구강위생보조용품의 사용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예방 차원의 중요한 구강환경관리법으로 칫솔질과 치간세정을 들 수 있는데, 칫솔질이란 칫솔로 이를 닦는 행위를 말하며, 치주조직병을 예방하는 방법 가운데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칫솔질이 치주조직병을 예방하는 기구는 세정작용과 마사지작용이라고 알려져 있다. 치은 마사지는 치은에 혈액을 양호하게 공급하고 치은 상피의 각화를 촉진하여 감염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준다. Glickman은 사람이 5~50세까지의 기간 동안에 칫솔질을 정당하게 함으로써 일생동안 치주조직병에 기인한 치조골 파괴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 하였다. Muhler도 칫솔질로 치은의 건강 수준이 증진된다고 주장 하였다. Glickman이 1965년에 20세 이상의 미국 성인 14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던 결과 칫솔질과 치주조직병과의

†Corresponding author

Tel: 055-755-0319

Fax: 055-743-3010

E-mail: era670329@hanmail.net

관계를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14%에 불과하였으며⁵⁾, 백⁶⁾은 한국인의 구강보건 실태를 조사 검토하고 평균 일인당 매일 칫솔질 횟수가 증가 되고 있으나 치아우식경험 정도 역시 증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포괄적인 예방대책과 적절한 구강위생용품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역설 하였다. 장⁷⁾은 칫솔질 횟수가 많을수록, 식전보다 식후에 칫솔질 하는 아동이 치아우식수가 적어짐을 보고 했고 이는⁸⁾ 칫솔질이 치아우식증 예방 실천방법에서 최우선으로 의존되고 있다고 보고 하였다.

치간세정은 치아와 치아 사이를 닦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치은염은 치간 유두에서부터 발생되어 치주조직병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치은염은 어떠한 원인으로 치아와 치아 사이에 공간이 생겨 불결한 경우에 더욱 자주 발생된다. 따라서, 칫솔질을 함과 아울러 치간을 세정하여야 한다. 치간유두염의 발생률이 칫솔질로서 6.6% 감소되었으나, 칫솔질을 함과 아울러 칫솔 자루의 끝에 부착되어 있는 고무 원추로 치간을 세정하였을 경우에는 26.3%나 감소되었다고 Glickman은 보고 하였다. 확실히 치간 세정은 치간 유두염의 발생률을 감소시킨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구강위생용품과 보조용품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구강환경관리가 보다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김⁹⁾은 구강환경관리용품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허와백¹⁰⁾은 개원치과의원에서 환자에 대한 칫솔질 교습이 한정 되어 있으므로 식이조절, 불소용액양치, 치실사용 등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저자는 D중공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구강위생용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근로자 구강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구강위생용품의 종류에 대한 인지도, 사용방법, 사용효과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근로자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본 조사의 제한점은 조사 대상자가 대부분 남자 근로자이였으며, 대부분이 기혼자이였으며, 구강건강에 대한 객관적 검사와 구강위생용품 사용실태와의 상관성 부분에서 근로자 전체를 나타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S시의 D중공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226명을 대상으로 2006년 2월1일부터 2월 10일까지 구강위생용품의 사용 실태에 대해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2. 연구 방법 및 자료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주)력키의 '한국인의 구강보건실태와 구강위생의식에 관한 조사보고서¹¹⁾와 김¹²⁾의 주요문항을 연구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설문지의 문항은 가정에서 관심있게 관리하는 구강병, 칫솔사용의 실태, 불소치약사용여부, 구강위생보조용품의 사용 실태, 구강위생보조용품의 사용 및

비사용 동기에 대한 24문항이었으며,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기 기입 방식으로 작성하게 한 후 회수하였다.

모든 분석은 SPSS 13.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각 문항별 빈도와 비율(%)을 산출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응답빈도의 차이를 교차분석을 통하여 알아보았고 그 결과 유의수준은 $\alpha = .05$ 이다.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성별은 90% 이상이 남자로 구성되었으며 결혼여부는 기혼자(78.8%)가 미혼자(21.2%)보다 3.7배정도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39.8%)가 가장 많았다. 학력은 고졸(43.4%)대상자가 직종에서는 생산직 종사원(49.6%)이 가장 많았으며 대체적으로 200-300만원의 소득(48.2%)을 가지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2. 가정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는 구강병

가정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는 구강병은 Table 2와 같다. 치아우식증은 62.4%, 치주병은 28.8% 로 나타났다. 특히 남자의 경우 치주병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 높은 경향이며, 여자보다 부정교합이나 구강암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경향이 있었다($p < .05$).

Table 1. Special character distribution by general information

characteristics	division	N	%
sex	male	204	90.3
	female	22	9.7
marital status	married	178	78.8
	unmarried	48	21.2
age	under 20-29 years old	26	11.5
	30-39 years old	90	39.8
	40-49 years old	46	20.4
	over 50-59 years old	64	28.3
education	middle school graduate	35	15.5
	high school graduate	98	43.4
	university graduate	74	32.7
	more than post graduate	19	8.4
work	management	41	18.1
	office work	73	32.3
	production work	112	49.6
position	labor	116	51.3
	office worker	41	18.1
	section director	38	16.8
	more than assistant manager	31	13.7
monthly incom	under 200 million won	75	33.2
	200-300 million won	109	48.2
	over 300 million won	42	18.6
total		226	100.0

Table 2. The most interesting dental disease at home by sex

sex	dental caries	periodontal disease	malocclusion	oral cancer	total	$\chi^2(p)$
male	120(58.8)	64(31.4)	12 (5.9)	8(3.9)	204(100.0)	11.397* (.010)
female	21(95.5)	1(4.5)	0(.0)	0(.0)	22(100.0)	
total	141(62.4)	65(28.8)	12(5.3)	8(3.5)	226(100.0)	

* $p < .05$

3. 칫솔사용 실태

칫솔의 사용실태에 대해서는 칫솔 크기, 칫솔강모의 모양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사용하는 칫솔의 크기는 Table 3과 같다. 칫솔의 크기는 대체적으로 중간크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79.6%), 연령이 낮을수록 작은 크기의 칫솔 이용도가 높은 경향이었다($p < .05$). 칫솔의 강모 모양에 대해서는 Table 4와 같다. 일반 수평형은 166명(73.5%), 특수한 모양을 사용하는 경우는 60명(26.5%)으로 나타나 비교적 수평형의 사용도가 더욱 높은 경향이었다. 그러나 연령이 낮을수록($p < .05$), 사무직 종사자($p < .01$)일수록 더욱 특수한 모양의 칫솔 이용도가 높은 경향이었다.

4. 불소치약 사용여부

불소치약의 사용여부는 Table 5와 같다. 불소치약을 사용하는 경우는 67명(29.6%)에 불과하였으며 대부분이 사용하는 치약의 종류에 구애를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조사 대상자들은 치약이 불소를 함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지도가 낮음을 알 수 있었고 성분보다는 브랜드나 그 외 다른 요인이 치약을 선택하는 데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연령이 낮거나($p < .05$) 학력이 높은 경우($p < .05$), 사무직($p < .01$)이나 관리직($p < .01$)에 종사하거나 대리급 이상($p < .05$)인 경우 에는 비교적 불소가 함유된 치약의 사용도가 높은 경향이었다

5. 구강위생 보조용품의 사용실태

구강위생보조용품의 사용실태는 구강용품 중 대표적인 칫솔의 사용실태와 보조용품의 사용실태를 분석하였다. 구강위생 보조용품의 인지도는 Table 6과 같다. 칫솔에서는 전동칫솔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았으며(77.0%), 틀니용칫솔, 치주질환용 칫솔, 교정용칫솔에 대한 인지도는 평균 13.1%로 나타났다($p < .001$). 구강위생보조용품에 대한 인지도는 이쑤시개(89.4%)와 양치용액(84.5%)을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치실(55.3%)이 높게 조사되었다($p < .001$).

구강위생보조용품의 사용 실태는 Table 7과 같다. 칫솔 중 전동칫솔을 사용하는 경우는 13.3%이며, 그 외 틀니용 칫솔, 치주질환용칫솔, 교정용칫솔은 2% 이내로 매우 낮게 조사되었다($p < .001$).

구강위생보조용품 중에서는 이쑤시개(58.4%)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양치용액(41.2%), 치실(27.4%), 치간잇솔(18.6%)의 순이었다($p < .001$). 그 외 제품은 사용도가 낮았다.

칫솔 및 구강위생보조용품을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 후 효과는 Table 8과 같다. 조사 대상자들은 잇솔의 경우 치주질환용 잇솔의 효과는 다소 낮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전동잇솔이나, 틀니잇솔, 교정용 잇솔의 효과는 다소 높다고 응답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에 구강위생보조용품에서는 물시술기, 치간잇솔, 치은맛사져, 틀니 세정제, 치실, 설태제거기의 효과는 매우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실제적으

Table 3. The size of tooth brush head by age

charateristics	small	middle	large	total	$\chi^2(p)$
under 20-29 years old	9(34.6)	16(61.5)	1 (3.8)	26(100.0)	19.150** (.004)
30-39 years old	11(12.2)	75(83.3)	4 (4.4)	90(100.0)	
40-49 years old	5(10.9)	35(76.1)	6(13.0)	46(100.0)	
over 50-59 years old	3 (4.7)	54(84.4)	7(10.9)	64(100.0)	
total	28(12.4)	180(79.6)	18 (8.0)	226(100.0)	

** $p < .01$

Table 4. Using tooth brush shape by position grade & age

charateristics	division	horizontal plane	special shape	total	$\chi^2(p)$
age	under 20-29 years old	14	12	26	10.547* (.014)
		53.8	46.2	100.0	
	30-39 years old	62	28	90	
		68.9	31.1	100.0	
40-49 years old	36	10	46		
	78.3	21.7	100.0		
over 50-59 years old	54	10	64		
	84.4	15.6	100.0		
position	labor	93	23	116	17.322** (.001)
		80.2	19.8	100.0	
	office worker	20	21	41	
		48.8	51.2	100.0	
section director	27	11	38		
	71.1	28.9	100.0		
more than assistant manager	26	5	31		
	83.9	16.1	100.0		
total		166	60	226	
		73.5	26.5	100.0	

* $p < .05$, ** $p < .01$

Table 5. Use of tooth-paste with fluoride by age & education

(N, %)

charateristics	division	yes	no	unknowing	freely	total	$\chi^2(p)$
age	nuder20-29 years old	9	1	7	9	26	
		34.6	3.8	26.9	34.6	100.0	
	30-39 years old	28	5	23	34	90	
		31.1	5.6	25.6	37.8	100.0	19.391*
	40-49 years old	12	1	6	27	46	(.022)
over	18	3	3	40	64		
education	middle school graduate	28.1	4.7	4.7	62.5	100.0	
		9	2		24	35	
	25.7	5.7		68.6	100.0		
	high school graduate	25	6	16	51	98	
	25.5	6.1	16.3	52.0	100.0	18.727*	
university graduate	26	2	19	27	74	(.028)	
35.1	2.7	25.7	36.5	100.0			
more than post graduate	7		4	8	19		
36.8		21.1	42.1	100.0			
work	management	15		6	20	41	
		36.6		14.6	48.8	100.0	
	office work	25	2	21	25	73	
34.2	2.7	28.8	34.2	100.0	20.184**	(.003)	
production work	27	8	12	65	112		
24.1	7.1	10.7	58.0	100.0			
position	labor	30	8	13	65	116	
		25.9	6.9	11.2	56.0	100.0	
	office worker	12	1	15	13	41	
	29.3	2.4	36.6	31.7	100.0	21.110*	(.012)
section director	15	1	5	17	38		
39.5	2.6	13.2	44.7	100.0			
more than assistant manager	10		6	15	31		
32.3		19.4	48.4	100.0			
total		67	10	39	110	226	
		29.6	4.4	17.3	48.7	100.0	

* p < .05, ** p < .01

Table 6. acknowledge status about auxiliary oral hygiene menterial

(N, %)

division	kind	know	unknow	$\chi^2(p)$
toothbrush	electric tooth brush	174(77.0)	52(23.0)	
	denture brush	30(13.3)	196(86.7)	
	tooth brush for periodotitis patient	23(10.2)	203(89.8)	336.943***
	tooth brush for ortodontic patient	36(15.9)	190(84.5)	(.000)
auxiliary oral hygiene menterial	toothpaste for sensitvity teeth	20(8.8)	206(91.2)	
	water pick	45(19.9)	181(80.1)	
	wooden pick	202(89.4)	24(10.6)	
	end tuft tooth brush	20(8.8)	206(91.2)	
	interdental brushes	77(34.1)	149(65.9)	
	rubber tip	25(11.1)	201(88.9)	934.951***
	denture cleaning agent	29(12.8)	197(87.2)	(.000)
	dental floss	125(55.3)	101(44.7)	
	tongue cleaner	50(22.1)	176(77.9)	
	gargling liquid	191(84.5)	35(15.5)	
	super-floss	28(12.4)	198(87.6)	

*** p < .001

Table 7. The use status of auxiliary oral hygiene menterial (N , %)

division	kind	use	unuse	$\chi^2(p)$
tooth brush	electric tooth brush	30(13.3)	196(86.7)	44.037*** (.000)
	denture brush	4(1.8)	222(98.2)	
	tooth brush for periodotitis patient	6(2.7)	220(97.3)	
	tooth brush for ortodontic patient	5(2.2)	221(97.8)	
auxiliary oral hygiene menterial	toothpaste for sensitvity teeth	6(2.7)	220(97.3)	625.586*** (.000)
	water pick	15(6.6)	211(93.4)	
	wooden pick	132(58.4)	94(41.6)	
	end tuft tooth brush	8(3.5)	218(96.5)	
	interdental brushes	42(18.6)	184(81.4)	
	rubber tip	5(2.2)	221(97.8)	
	denture cleaning agent	4(1.8)	222(98.2)	
	dental floss	62(27.4)	164(72.6)	
	tongue cleaner	15(6.6)	211(93.4)	
	gargling liquid	93(41.2)	133(58.8)	
	super-floss	6(2.7%)	220(97.3%)	

*** p < .001

Table 8. The effect after use of auxiliary oral hygiene menterial

(N , %)

division	kind	N	effect	so so	no effect	$\chi^2(p)$
toothbrush	electric tooth brush	30	13(43.3)	15(50.0)	2(6.7)	9.674 (.139)
	denture brush	4	2(50.0)	2(50.0)	-	
	tooth brush for periodotitis	6	1(16.7)	5(83.3)	-	
	tooth brush for orthodontic patient	5	2(40.0)	1(20.0)	2(40.0)	
auxiliary oral hygiene menterial	toothpaste for sensitvity teeth	6	3(50.0)	2(33.3)	1(16.7)	81.232*** (.000)
	water pick	15	12(80.0)	1(6.7)	2(13.3)	
	wooden pick	132	33(25.0)	8(60.6)	19(14.4)	
	end tuft tooth brush	8	3(37.5)	5(62.5)	-	
	interdental brushes	42	30(71.4)	10(23.8)	2(4.8)	
	rubber tip	5	3(60.0)	2(40.0)	-	
	denture cleaning agent	4	3(75.0)	1(25.05)	-	
	floss	62	47(75.8)	10(16.1)	5(8.1)	
	tongue cleaner	15	10(66.7)	3(20.0)	2(13.3)	
	gargling liquid	93	33(35.5)	54(58.1)	6(6.5)	
	super-floss	6	3(50.0)	2(33.3)	1(16.7)	

*** p<.001

Table 9. The use & unused motivate of auxiliary oral hygiene menterial

	contents	N	%
use motivate	encouragement by dental clinic	43	25.0
	encouragement by market, sailor,etc	15	8.7
	self choice by TV, journal, advertisement etc	99	57.6
	encouragement by dental treatment consult	15	8.7
	total	172	100.0
unused motivate	no encouragement by dental clinic	6	11.1
	difficult to buy	4	7.4
	expensive	2	3.7
	uncomfortable and difficult to use	9	16.7
	nothing effect	2	3.7
	unknow proper kind	31	57.4
	total	54	100.0

로 흔히 사용하는 이쑤시개나 양치용액의 효과는 다소 낮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어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01).

6. 구강위생보조용품의 사용 및 비사용 동기

구강위생보조용품의 사용 및 비사용 동기는 Table 9와 같다. 구강위생보조용품을 사용하는 172명중 TV매체나 광고, 홍보물을 보고 독자적인 판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57.6%이며, '치과에서 권장한 경우'가 25.0%로 치과치료나 상담을 통해서 보조용품을 이용하는 경우보다는 광고 효과에 의해서 이용하는 경향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구강위생보조용품의 사용 동기는 모든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반면에 구강위생보조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자신에게 적절한 보조용품을 모르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치과에서 권장하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는다'가 11.1%로 높은 경향이며, '실제로 자신이 사용하기에 매우 불편함을 느낀다'가 16.7%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고 찰

구강상병은 그 특성상 범발성이며 대부분 만성질환이고 비가역적, 누적적이지만 다른 질환과는 달리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초기치료에 따라 시간적 경제적 비용절감 효과가 매우 크다¹³⁾. 양태 구강병의 예방은 구강병 발생에 관여하는 환경 요인과 숙주 요인 및 병원체 요인 중 한가지를 제거하거나 두가지 이상의 요인이 상호작용하는 기구를 차단함으로써 가능한¹⁴⁾ 방법이 치면세균막관리이다. 치면세균막은 치아우식증을 유발하는 산 생성의 원인이며, 치주질환을 유발하는 치석 형성 원인의 일차적인 요소이다. 그러므로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치면세균막의 형성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¹⁵⁾. 치면세균막 제거에는 칫솔질이 효율적이지만 개인의 구강 상태에 맞는 구강위생보조용품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보다 완벽한 치면세균막관리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에 저자는 D중공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개인 구강건강의식과 더불어 구강위생용품과 보조용품에 대한 인지도, 사용실태, 효과 여부를 조사하였다. 가정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구강병으로는 충치가 62.4%로 치주병이 28.8%로 나타났다. 설문대상자가 90% 이상이 남자였으며 기혼이 78.8%, 대부분이 기혼자임에도 치주병에 대한 관심은 의외로 낮은 것은 치과질환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관심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 된다.

치면세균막관리방법으로 많이 사용하는 칫솔질에서는 조사대상자들이 올바른 칫솔을 선택하고 있어 구강보건교육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치제의 선택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구강보건교육의 노력이 필요하다. 치약을 고를 때부터 불소나, 마모제등의 성분을 살피고 치약을 선택하고자 하는 의식이, 자신의 구강 건강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신의 잇몸 상태나 치아 상태를 잘 파악하고 때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선택하는 것도 효과적인 구강관리 행태의 한 방법이라는 인식고취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구강위생용품 사용에서는 인지도가 높다고 해서 사용여부 효과가 높은 것은 아니었다. 전동잇솔은 광고나 TV등의 홍보물로 인해서 인지도는 높지만 사용도는 낮았는데 가격이 고가여서 손쉽게 구입하기가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이쑤시개와 양치액 순으로 인식도와 사용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효과여부는 낮은 수치를 보여 이는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손쉽게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좀 더 대중적이고 효과적인 구강위생용품의 개발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번 결과에서 근로자들은 일반사람들에 비해서 다양한 구강위생용품의 선택과 사용에 소극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치과를 비롯한 관계 분야의 구강보건교육이 협의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을 나타내는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치실과 치간칫솔은 전문가 사용시에는 칫솔로 제거가 어려운 치면세균막관리에 아주 효율적인 구강위생보조용품이지만, 설문 대상자들에게는 인지도에 비해서 사용자수가 낮은 편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약 200여종의 칫솔과 40여종의 세치제, 그리고 10여종의 구강위생보조용품이 생산, 수입, 시판되고 있으나, 서¹⁶⁾ 이¹⁷⁾ 김¹⁸⁾등의 조사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구강보건용품에 대한 인지도가 10년 전 (주)럭키 구강위생보조용품과 비교하여 볼 때 크게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치과병원을 포함한 구강보건관련단체의 적극적인 구강보건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었다. 구강위생보조용품의 사용 동기는 TV나 광고홍보물을 보고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57.6%로 높게 나타났으며, 치과에서 권장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25.0%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점은 서와 김의 연구조사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본 조사대상자는 근로자이기에 시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치과내원이 자유롭지 못한 관계로 치과 관계자로부터의 구강위생용품과 보조용품사용 권장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구강위생보조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자신에게 적절한 보조용품을 모르기 때문에' 57.4%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의외로 사용이 불편하고 귀찮아서도 16.7%로 조사되었다. 전자는 전문인에게 개인의 구강건강 상태에 맞는 구강위생보조용품 사용법에 대한 상담을 받은 적이 없음을 의미하며, 후자는 구강질환이 삶의 질과 노동력 생산성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과 예방차원의 노력이 구강병을 미리 막을 수 있다는 데에 대한 의식부족으로 볼 수 있다. 구강병을 포함한 모든 질병은 예방 차원의 노력이 먼저 강조되어야 한다. 특히 자유로운 시간활용이 어려운 근로자는 비교적 쉽게 실천 가능한 구강위생환경관리방법부터 교육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들은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단순히 현재 질환의 치료문제가 아닌, 근로자가 되기 이전부터 구강건강의 예방적 관리의식 고취와 실천으로 구강건강이 얼마나 삶의 행복추구에 있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함을 먼저 인식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예방적 차원의 구강위생관리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방법들을 폭넓게 교육함과 아울러 실천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해주어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근로자를 위한 구강보건교육 및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는 구강위생용품의 사용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S시 D중공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정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는 구강병, 잇솔의 사용실태, 불소치약의 사용여부, 구강위생보조용품의 사용실태, 구강위생보조용품의 사용 및 비사용의 동기를 조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가정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는 구강병은 치아우식증(62.4%)으로 나타났다.
2. 칫솔 사용실태는 중간 크기를(79.6%)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3. 잇솔의 강모 모양은 일반 수평형(73.5%)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4. 불소치약 사용여부는 아무 종류나 사용한다(73.5%)가 가장 많았다.
5. 구강위생용품의 인지도에 대해서는 전동잇솔이(77.0%)로 가장 높으며 구강위생보조용품에 대한 인지도는 이쑤시개(89.4%)와 양치용액(84.5%)을 가장 많이 알고 있었다. 구강위생용품의 사용여부는 전동잇솔(13.3%), 치주환자용 잇솔(2.7%), 순서로 나타나며, 구강위생보조용품에서는 이쑤시개(58.4%), 양치용액(41.2%)의 순이었다. 사용효과는 틀니잇솔(50.0%), 전동잇솔(43.3%)로 나타났으며, 구강위

생보조용 품에서 효과 여부는 물사출기(80.0%), 치실 (75.8%)이 매우 높았다.

6. 구강위생보조용품을 사용하게 된 동기는 TV나 광고 홍보 물을 보고 독자적인 판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57.6%) 높게 나타났으며, 구강위생보조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에게 적절한 보조용품을 모르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매우 높게 (57.4%) 나타났다.

참고문헌

1. 김혜진: 산업근로자의 건강실태조사. 한국구강증진학회 학술대회 초록집 pp. 27-29, 2000.
2. 한영철: 한국 산업 구강보건의 약사. 산업구강보건학회지 6: 35-48, 1997.
3. 고소영: 계속근로자구강건강관리방안. 산업구강보건학회지 6(1):58-65, 1976.
4. 서은주, 신승철, 서현석, 김은주, 장연수: 한국인의 구강위생용품 사용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7(2): 177-178, 2003.
5. 김종배, 김광수, 김영희, 정순희, 진보형, 최은미, 황윤숙: 공중구강 보건학. 3판. 고문사 pp.88, 2004.
6. 백대일: 한국인의 치아우식예방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7(1): 1-12, 1973.
7. 장시덕: 구강보건관리에 따른 초등학교생의 치아우식증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8. 이재화, 나수정, 김진범: 대도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가정주부의 구강보건 지식과 행동.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4): 509-529, 1996.
9. 김종배, 김광수, 김영희, 정순희, 진보형, 최은미, 황윤숙: 공중구강 보건학. 3판. 고문사, pp. 90, 2004.
10. 허준석, 백대일: 일반 치의사의 치아우식예방지식과 태도 및 실천에 관한 조사 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7(2): 215-239, 1993.
11. 럭키(주): 한국인의 구강보건실태와 구강위생의식에 관한 보고서 pp. 6, 1983.
12. 김종배, 백대일, 문혁수, 진보형, 송연희: 구강환경관리용품의 선택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6(2): 493-504, 1992.
13. 고경심, 황상악: 독일 산업보건제도의 변천; 19세기 산업화 도기부터 바이마르 공화국까지. 대한의사학회지 5(2): 129-45, 1996.
14. 김종배, 최유진: 공중구강보건개정판. 고문사, 서울, pp.9-13, 1993.
15. 이경재, 김재곤, 오세원, 조민정, 양정승, 김미형, 이항님, 김승희, 심형순: 치과위생사를 위한 치아 보철환자의 구강관리. 나래출판사. pp. 8-12, 2005.
16. 서은주: 한국인의 구강위생용품 사용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석사학위논문 2001.
17. 이영혜, 문혁수, 백대일, 김종배: 서울 특별시 가정 구강보건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4(3): 239-257, 2000.
18. 김수경: 치과병 · 의원 내원 환자의 구강위생용품에 대한 인지도 및 사용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치위생과학회지 2(2): 95-103, 2002.
19. 럭키(주): 한국인의 구강보건행동 및 구강보건의식에 관한 제2차 보고서. pp. 10-55, 1991.

(Received, May 29 2006; Accepted, June 20 2006)

